

사랑하는

테일이에게

BABYTALE · BABYTALE.KR

공룡 친구 디노

작은 공룡 친구와 떠나는 쥬라기 모험



풀밭에 큰 발자국이
동그랗게 찍혀 있었어요.

테일이가 가만히
발자국을 따라가요.



발자국이 점점
작아져요.
맨 끝에 작은 그림자가 있어요.
테일이가 가만히 봐요.



테일이 앞에 아기 공룡 디노가
작은 뿔을 보였어요.

큰 바위 뒤에서
누가 뺨곰 보였어요.



디노가 레일이에게
작게 인사했어요.
“레일아, 안녕?
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.
같이 찾아줄래?”



테일이가 디노 손을 잡고
큰 잎 숲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요.
키 큰 잎 사이로
햇살이 쏟아져요.





위에서 익룡 폴이 살랑살랑
테일이 곁으로 날아와요.
“이쪽으로 가면 돼!”
폴이 날개로 알려줘요.



작은 시냇물을
테일이가 폴짝 건너요.

큰 뿔 아래로
돌아서 살금살금 걸어가요.

레일이 옆에서 디노가
가만히 멈춰 섰어요.

“이 냄새,
우리 엄마 냄새야!”



빈터 한가운데
큰 둥지가 있었어요.
레일이가 두 눈을
동그랗게 떴어요.





큰 트리케라톱스가
가만히 다가왔어요.
다정한 큰 눈이
테일이를 가만히 보았어요.

디노 엄마가 두 친구를
가만히 안았어요.
“고마워, 레일아.
우리 디노를 데려와줘서.”



둥지 옆에 레일리와 디노가
나란히 기댔어요.
별이 둘 위에서
반짝반짝 빛났어요.



A child with dark hair is sleeping peacefully on a pink and green striped blanket. A green dinosaur with yellow spots is curled up next to the child. They are in a garden at night, with a large nest of sticks behind them containing several yellow eggs. The background is a dark purple night sky with a crescent moon and stars, and various plants and flowers are visible.

테일이가 새근새근 잠들어요.
디노네 가족도 우리 가족 같아요.

이 이야기는
테일이를 위해
단 한 번, 단 한 권만
만들어졌습니다.